

2022-2 스위스 ETH 교환학생 후기

2022년 가을학기에 ETH Zurich 파견된 기계공학부(+연합전공 인공지능) 유지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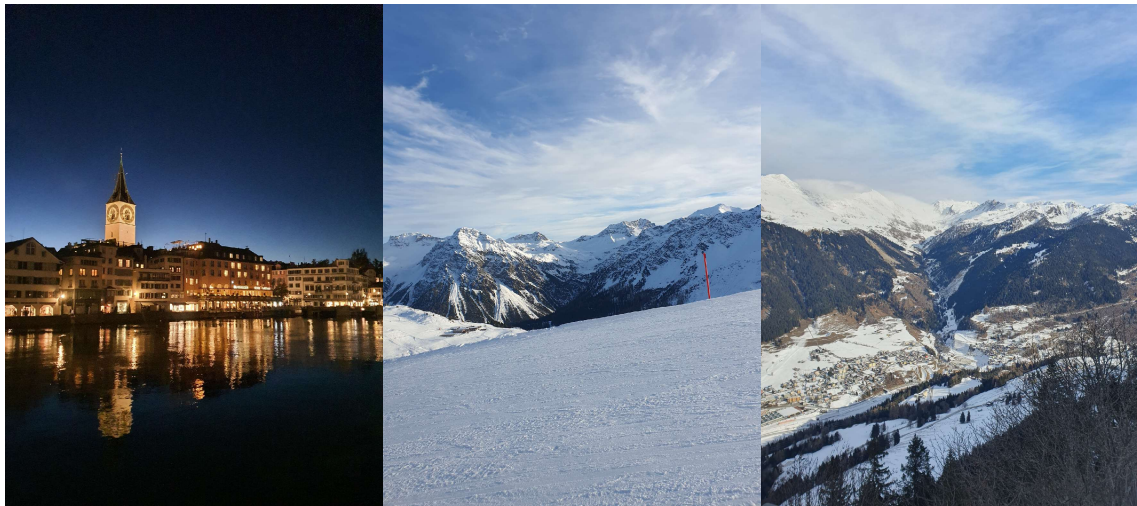
이미 이전후기에 충분한 정보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느꼈던 사소한 것들 위주로 적어보겠습니다.

1. 생활

한인마트(유미하나)에서 라면 다양하게 팔아서 굳이 한국에서 사 올 필요 없습니다. 전 신라면 5~6팩 싸들고왔다가 헨타왔네요. 고추참치 통조림은 안파는거같던데 사오면 좋을듯합니다. 한국에서는 안 팔고 유럽에서만 파는 신라면 김치맛 있는데 아주 양호합니다.

핸드폰 유심은 Sunrise Swisscom Salt Lycamobile Swype Yallo 기타 Migros Coop 알뜰폰 등 많고 전 Lycamobile Hello Swiss L 썼습니다. 매달 스위스내 40기가 스위스 밖 유럽에서도 3기가씩 줘서 여행 다닐 때 편합니다.

교통은 110 monthly pass, half-fare, gleis 7, GA, flibus, pinkbus, snow25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Migros Coop Aldi Lidl Denner 등 체인점 많고 Migros M-Budget 매우 추천합니다. 거의 한국 슈퍼 물가보다 더 싼 듯... 일요일엔 대부분의 슈퍼가 문을 닫고 토요일에 미리 사놔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외식물가가 비싼 관계로 다들 기숙사에서 요리해먹게 될 텐데 한국에서 요리 연습해오는 게 매우 좋을 듯합니다. 저는 자취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채로 와서 처음에 적응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하는데 한국에 비해 콘서트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자주 다녔습니다(Amon amarth, Arch Enemy, At the Gates 등). 거의 한달에 한 번씩 갔는데 매우 만족스럽네요.



취리히 한인 유학생 모임 및 특방이 있는데 석사/박사/직장인 선배님들을 통해 취리히 유학/생활/취업 관련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매우 추천드립니다.

취리히 위치가 워낙 좋고 공항도 도시에서 가까워서 버스/기차/항공으로 유럽 여행 다니기에는 참 좋습니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동유럽 등...취리히에 있다 보면 여행을 어디로 가든 물가가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 기숙사

기숙사는 Alte Landstrasse 98이 되어서 처음엔 매우 당황했는데(후기에 없는 처음 보는 기숙사였고 학교랑도 꽤 멀어보였기 때문) 이전 후기에 없으니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방이 꽤나 넓고(웬만한 한국 자취방 2배) 방마다 발코니/정원이랑 연결되어 있고 개인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변 동네가 평화롭고 조용하고 예쁘고 산책하다 보면 '스위스 느낌'이 납니다. 조금만 걸어나가면 경치좋은 뒷산(Zollikerberg)나 호수가 있어서 물명하기 좋아요. 기숙사 건물 바로 옆에 Migros(꽤나 큰 편), Coop, 버스정류장이 있고, Zentrum 캠퍼스까지 30분거리라 생각보다는 멀지

않습니다. 낙성대에서 윗공대 가는 거랑 체감시간이 비슷한 거 같기도...기숙사 규정상 방에서 요리하는 게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화장실이 있어서 전기밥솥요리+설거지 정도는 방안에서 가능합니다. 단점은 60명사는데 1층에 공용부엌 하나밖에 없고 냉장고공간이 살짝 부족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대로 적응됩니다.

가을학기 교환의 경우 기숙사 계약은 1월 31일 까지라 2월에 취리히에 남아있고 싶으면(시험, 프로젝트 등) accommodation을 알아서 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ETH에서 1박당 30프랑씩 지원해줬던 것 같네요.

3. 수업, Semester Project, 교내행사 등 학교 관련

솔직히 학식 맛없습니다. 학식뿐 아니라 스위스 음식 자체가 그런 것 같기도...

ASVZ 운동은 다른 후기에 많이 나와있고...전 헬스, 킥복싱, 농구, 배드민턴 등 해봤습니다.

Intensive German Class: 장점은 학기초에 다른 과/외국인 친구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단점은 취리히에서 영어만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다? 그래도 어차피 개강 전까지 시간 빌 텐데 웬만하면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계과 기준 AMIV에 유용한 정보 많고 CAB건물에서 매일 free beer 한 병씩 주는데 아쉽게도 매일인 날이 많습니다.

근처에 Europapark라고 놀이공원 있는데 매우매우 재밌으니 ESN에서 이벤트할 때 신청해서 따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업은 프로젝트 20크레딧 PDM4AR 4크레딧으로 총 24크레딧 들었습니다. 기계과 Robotics 관련해서 처음에 수강신청했던 건 PDM4AR(Planning and Decision Making for Autonomous Robots), DPOC(Dynamic Programming, Optimal Control), RD(Robot Dynamics), AML(Advanced Machine

Learning) 등등 있는데 AML은 머신러닝 prerequisite가 있고 10크레딧에 로드가 상당히 빠센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RD는 기계과 로공입이랑 겹치는 게 많고... DPOC는 듣다가 말았는데 체감상 수학, 이론, 시험위주라 사알짝 별로였습니다. PDM4AR은 4크레딧에 시험 없고 프로그래밍 과제(5~6개)+중간플젝+기말플젝으로 대체였습니다. Graph search algorithm(BFS, DFS, uniform cost search, A* search), dynamic programming(value iteration, policy iteration), dubin's path, collision checking, MILP, RRT*, controller 등에 관련된 코딩과제/플젝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4크레딧보다는 로드가 상당히 빠센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Piazza는 항상 혼돈의 카오스...). 또 git, github, docker, VSCode 등의 툴에 익숙하지 않다면 초반에 몇 배로 고생하고...그래도 이론공부/시험보다 프로그래밍과제에서 얻어 가는 게 많다고 느꼈고 DPOC에 비해 다양한 개념을 다루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지만 학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Semester Project: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ETH 교환 쓸 때 이 Semester project를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전 어쩌다 보니 취리히 와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찾는 걸 시작했는데 데드라인 전에 프로젝트 구하고 교수님의 confirmation을 받는 게 시간이 뽁뽁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프로젝트공고 올라오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지원+supervisor한테 메일->답장이 올수도 안올수도 늦게올수도->인터뷰했다가 붙을 수도 떨어질 수도...플젝생각이 있다면 일찍부터 찾기 시작하는게 안전할 듯 하네요. 저는 Robotics, ML 관련 주제로 매주 supervisor랑 줌미팅, 2~3주에 한 번씩 교수님이랑 줌미팅, 마지막에 즐논쓰듯이 report 작성 및 ppt 최종발표와 같은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4. 총평

취리히라는 도시 자체는 깨끗하고, 치안 좋고, 영어 잘 통하고, 한국에 비해 날씨도 따뜻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살기 좋지만 서울에 비해 살짝 심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ETH라는 좋은 학교에서 연구에 참여하거나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여행, 스키, 하이킹, ASVZ운동시설, ESN이벤트 등 교환학생으로서 즐길거리도 많은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서 모든 생활(은행 보험 기타행정처리 요리 등)을 저 스스로 하는 게 초반에 상당한 challenge였고(하지만 제가 자취경험이 부족하기도 했고 이 또한 교환학생 경험의 의의인 듯 하네요) 스트레스 받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물가 비싼 동네에 왔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교환기간 동안 즐거웠던 것도 많고 고생했던 것도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참 유익한 경험이었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해외 유학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대본부 및 장학금을 제공해주신 총동문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